

나주시민추진위,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열기 확산

전 시민이 함께하는 나주 유치 홍보 캠페인 전개

전라남도 나주시가 시민과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 도약을 위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이하 나주시민추진위)'는 6일 빛가람동 한전KDN 사거리 일원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공동위원장인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시민추진위 집행위원장, 추진위원 등 80여 명이 참여해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시민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총사업비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바닷물 속 수소 1g으로 석유 8t에 해당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청정에너지 연구

시설이다.

화학연료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연료 공급이 끊기면 즉시 가동이 멈추는 특성상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발전 방식으로 평가된다.

나주시는 이미 핵융합 연구 기반과 부지 안전성, 산업 연계성이 두루 뛰어난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지질 안전성과 정수 여건이 우수한 부지를 확보했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인공태양 8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을 선점해 추진 중이다.

또한 핵융합 관련 학계와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기술 협력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나주에 유치될 경우 2050년까지 300개 이상의 관련



기업 유치와 1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광주와 전남의 미래 100년을 열어갈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위해 시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며 "유치 열기를 더욱 확산시켜 반드시 나주에 유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정 핵융합시설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모를 진행 중이며 이달 13일까지 유치계획서를 신청받은 뒤 14일부터 20일까지 사전 실무 현장 조사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신우철 완도군수, 외딴섬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군외면 사후도·고마도 찾아 주민 생활 불편 사항 청취

완도군은 지난 4일 현장 소통 및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외딴섬을 대상으로 이동 군수실을 운영했다.

이번 이동 군수실은 군외면 사후도와 고마도를 찾았으며, 본 섬과 떨어진 행정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섬 주민들의 생활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참여와 신뢰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외면 사후도와 고마도는 40여 가구가 거주하고 해삼, 굴 등이 주 소득 원이며, 육지와 섬을 왕래하는 정기 여객선은 1일 3회 운행되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대야2리-중앙시장 참여와 관심 덕분에 광양사랑상품권 목표 달성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 제고를 위해 광양사랑상품권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로 개설 등을 건의했다.

이에 신우철 완도군수는 "보조 항목 개선포로 개선포 운영 등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보조 항목 개설의 경우 해양수산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외딴섬 주민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로 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완도군은 외딴섬 방문 등 다양한 민생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을 연중 운영 중이다. 완도/장선우 기자

광양시, 광양사랑상품권 1,000억 원 판매 달성... '할인판매 종료'

상품권 확대 발행 및 캐시백 상향 등 다양한 이벤트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광양시는 민생 회복과 지역 내 소비 촉진,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추진해 온 1,000억 원 규모의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를 11월 6일부터 종료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2022년 전남에서 최초로 모

바일 상품권을 도입해 시민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으며, 올해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300억 원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1,000억 원)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10% 할인판매

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설·추석 명절 15% 캐시백 특별적립 △10~11월 13% 캐시백 적립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5% 추가 적립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연계 운영하며 시민 체감형 혜택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매출 증대에도 큰 효과를 거뒀다.

판매 종료 전 구매한 상품권은 종료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캐시백 적립도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정혜중 투자경제과장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덕분에 광양사랑상품권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 제고를 위해 광양사랑상품권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장흥군은 6일 지역으로 새롭게 전입한 주민을 대상으로 '신규 전입자 장흥 바로알기 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흥 바로알기 투어'는 신규 전입자의 지역 적응을 돕고 공동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장흥군은 신규 전입자의 정착을 돕고자 2017년부터 올해까지 9회에 걸쳐 지역 투어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지금까지 총 230여 명의 전입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 지역 투어에는 2024년 1월 1일 이

장흥군, 신규 전입자 '장흥 바로알기 투어' 정착 지원

전입자의 지역 적응 지원 및 공동체 참여 촉진

후 장흥군으로 전입한 주민 22명이 참여했다.

군민회관을 출발한 참가자들은 안중근 의사 추모역사관, 해동사, 보림사, 뽕배움Zip, 한승원 문학학교·다도해가 보이는 남파랑길 문학산책로, 정남진전망대 등 장흥의 대표 명소를 방문했다.

특히, 이번 투어에서는 2024년 노벨문

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부친이자 지역 문학인인 한승원 작가의 문학학교와 산책길을 방문해 장흥의 문화적 깊이를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장흥의 역사와 자연, 문화를 직접 느끼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였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장흥 바로알기 투어는 단순한 관광 프로그램이 아닌, 전

입자들이 장흥의 매력과 정체성을 직접 체험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신규 전입자가 장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의 인구 감소율은 2021년 -3.31%에서 2025년 -0.71%로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군은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 '전입장려금', '공공시설이용우대 증 발급' 등 맞춤형 인구 정책을 통해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전남 구례군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7박 8일간 중국 일대에서 청소년 해외유적지 역사 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은 구례군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우수자 및 저소득층 등 20명이 학교장 추천에 의해 참여하였으며, 참가 학생들은 고구려 유적과 근대 항일운동 관련지를 직접 방문하며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생생히 체험했다.

구례군, "2025년 청소년 해외 유적지 탐방" 실시

독립의 정신, 청소년의 마음으로 되새기다

특히 광개토태왕릉비, 장수왕릉, 백두산, 환도산성, 안중근의사 기념관, 731부대 기념관 등을 찾아 역사적 의미를 배우고, 교과서에서 접한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 학생은 "자유와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임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청소년들이 교과서

속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의 시야를 넓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이번 탐방을 통해 고구려부터 근대 항일운동에 이르는 역사 현장을 재조명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를 폭넓게 이해하고 미래 세대로서의 자긍심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례/한경호 기자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시행

건폐율·용적률 확대... 농림지역 주택 건축 완화 등

장성군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정비사업구역 등에서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모든 층의 바닥면적 총합)이 대폭 확대됐다. 1·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이 70%로 완화됐으며 용적률도 1·2·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500%까지 허용한다. 준공업지역 용적률은 400%, 주거지역은 500%다.

농공단지외의 경우는 군계획위원회 승의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되면 건폐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다. 생산농지지역 등 기존 공장의 건폐율도 완화됐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 파쇄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장 조성도 허용된다.

농림지역 내 주택 건축에 관한 조례도 일부 완화됐다. 이전까지는 농어업인만 건축이 가능했던 단독주택을 앞으로는

1000㎡ 미만 규모라면 누구나 지을 수 있게 됐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련해서 농어가 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했다. 또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 없는 공작물의 설치 범위를 넓혔으며, 형질변경 심의 기준도 확립했다. 그밖에 유치원, 아동·노인복지·동식물 관련 시설의 심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건축법 개정에 맞춰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등 용어도 정비했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위임 중 임명·위촉하도록 해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입법예고에서 '도시계획'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